

- 주요 뉴스: 연준 부의장, 기준금리 인상 조건은 내년 말에 충족될 전망
 -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, 위험자산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고
 - 영란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위험 지속 시 필요한 행동을 취할 방침
 -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, 경기부양을 위해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프라 법안 통과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영향
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상승[+4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와 원자재 관련주 강세 등이 호재로 작용
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강보합 마감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리 인상 관측 후퇴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.2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프라 법안 통과 등이 배경
독일은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1.9원, -2.3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1/8일	11/5일	전일대비			11/8일	11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01.7	4,697.5	0.09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9%	1.45%	4bp
	유럽	483.61	483.44	0.04%		독일	-0.24%	-0.28%	4bp
	중국	3,498.6	3,491.6	0.20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507	29,612	-0.35%		중국	54bp	50bp	4bp
	한국	2,960.2	2,969.3	-0.31%	위험 지표	EMBI+	-	380	-
환율	달러지수	94.05	94.32	-0.29%		VIX	17.22	16.48	4.49%
	유로화	1.1587	1.1567	0.17%		WTI유	81.93	81.27	0.81%
	엔화	113.23	113.41	0.16%	원자재	구리	440.0	434.3	1.30%
	위안화	6.3927	6.3988	0.10%		금	1,824.2	1,818.4	0.32%
	원화	1,183.1	1,185.2	0.18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부의장, 기준금리 인상 조건은 내년 말에 충족될 전망

-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이 금리인상 검토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, 만일 최근의 경제전망이 옳다면, 내년 말에 최대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이라는 금리인상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
-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2022년 2회의 금리인상을 예상. 내년 중반 자산매입이 중단되면, 그 이후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.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대응도 빨라져야 한다고 첨언
-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는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.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,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, 위험자산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고

- 위험자산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, 경기 회복의 정체 혹은 감염병 재확산 등이 발생하면 급락할 수 있다고 평가. 스테이블 코인이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, 중국 부동산 불안이 심화되면 미국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

■ 미국 뉴욕 연은 조사, 소비자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2013년 6월 이후 최고치

- 이번 조사에 따르면, 해당 수치는 5.7%로 12개월 연속 상승. 3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4.2% 기록. 이번 결과는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유로존이 만성적인 고물가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

-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기적 측면에서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하다고 평가. 내년에는 공급 병목이 완화되고 에너지 가격도 하락 혹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

■ 영란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위험 지속 시 필요한 행동을 취할 방침

-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는데, 이러한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. 또한 노동공급 부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

■ 독일 소매업협회, 금년 성탄절 매출은 전년비 2% 증가 예상

- 지난 6개월 동안 봉쇄 조치 등으로 소비가 부진했지만, 높은 수준의 저축과 양호한 소비심리 등이 소매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

■ 일본 정부,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3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

- 기시다 정부는 이번 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며, 연말에는 의회 승인도 얻을 방침. 아동 1명당 10만엔 지급과 시민 1명당 3만엔 가치의 소비포인트 지급 등이 거론.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

■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, 경기부양을 위해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

- 익명의 관계자는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. 다만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낮으며,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
- 씨티그룹은 전력난과 공급 차질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, 이에 당국의 정책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

■ 중국 헝다그룹 계열사, 8200만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 이자를 미지급

- 헝다그룹 계열사 징청(Scenery Journey)이 6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미상환. 다만 채권자들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공식 채무불이행 사태는 모면

■ 골드만 삭스,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가 도래하는 중

- 얀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상승 등으로 초저금리 여건이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평가. 향후 중립금리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0.5%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8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1월 섹터 투자신뢰지수: 18.3, 10월(16.9), 예상치(18.6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생산자물가, 독일 11월 ZEW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, 시장의 기대와는 괴리 - 블룸버그

(5 Central Bank Unknowns That Will Shape Markets in 2022)

- 지난 주 연준, ECB, 영란은행 등이 발표한 통화정책은 모두 시장 예상에 비교하여 완화적(dovish)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. 이는 코로나 19 종료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, 경제 성장·인플레이션·에너지 가격 전망 등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
- 이에 이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단순 소비자물가가 아닌, 보다 복합적인 내용을 제시. 향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도, 경제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

■ ECB와 연준·영란은행,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상이 - Financial Times

(Central bankers take sharply different readings of inflation threat)

- 소비자 수요 증가, 공급 차질,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. 미국 경제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최대고용 목표에 근접했으며, 영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영란은행의 목표인 평균 2%를 달성
- 이에 이들 국가에서는 금리인상 논란이 심화. 하지만 유로존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GDP 회복은 금년 말에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. 아울러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역내 총수요가 취약한 상태임을 시사
-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평가. 또한 중기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2%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

■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, 경제 성장 둔화를 해소하기에 불충분 - 블룸버그

(China Trade Surplus Can Cushion But Not Stop Slowdown)

■ 중국의 극단적인 코로나 19 대책, 세계경제에 우려 요소 - Financial Times

(China's self-isolation is a global concer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